

■ 2019년 베니스비엔날레 제58회 국제미술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회의 심의평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회의(2차)

- 회의일시 : 2018. 6. 18(월), 14:00-18: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선정위원 : 김선희(선정위원장), 김희진, 안소연, 이준, 조선령, 양경학(당연직)

- 심층토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에 합의를 이루었지만 프레젠테이션 후보자 5명의 전시제안은 큐레이터의 기획 의도나 작가 선정 등에 있어서 모두 일정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으며 우열을 가리기도 쉽지 않았다.

국제미술계에서 이미 널리 주목받는 글로벌 작가에서 부터 한반도의 국제정세나 남북 분단의 문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의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작가들에 이르기 까지 주요한 이슈들이 유의미하게 검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진 후보를 최종 선정한 배경에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운영 방향에 있어서 지구촌 문화에 대한 “지리정치학적인 차별화”가 여전히 유효하며 “다름과 차이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이다.

최종 후보자의 국제적 전시경력으로 미루어 여성작가 3명을 통해 동아시아의 문화와 전통, 성 정체성과 몸의 문제를 글로벌 시각에서 담론화 할 수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문화와 전통이 단순히 지역적이거나 역사적인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 인간 삶의 다양한 방식에 끼치는 영향관계를 흥미롭게 다룰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 선정위원회는 1차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5명의 지원자들의 프리젠테이션과 지원자와 선정위원들의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선정위원들의 자유스러운 토론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원자들의 기획안들은 각각 개성있는 관심사를 토대로 흥미롭고 우수한 대안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최종선정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베니스비엔날레에서의 한국전시의 중요성을 선정위원들 모두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만큼 진중한 의견들을 교환했고, 한국적 특수성과 동시에 세계적 비전과 새로운 보편성을 고려하여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제안한 전시들은 직설적이든 은유적이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시대를 반영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주제나 접근 방식 등 담론의 차이가 많았다. 따라서 선정위원들의 평가도 당연히 서로 다른 관심과 평가를 내렸지만 서로 의견을 좁혀나가며 김현진 지원자를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동의했다.

김현진 기획자는 ‘동아시아 근현대를 탈주하고 재구성하는 수행적 여성 서사들’이라는 전시주제를 정은영, 제인 진 카이젠, 남화연 이 3명의 여성작가를 초청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선으로 응시하는 타자성의 담론을 젠다적 시각으로 엮어내는 전시를 구성하고자했다.

또한 김현진은 그동안 국내외에서의 활동과 역량이 충분히 검증된 기획자로서, 서구적 기준의 역사와 담론에 개입하는 시도를 주목하여 선정위원들은 한국미술의 새로운 플랫폼을 보여줄 것이라는 의견이 모여진 것이다. 따라서 내년 베니스비엔날레의 한국관 전시가 참신하고 독특하며 흥미롭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 현 상황에서 한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몇 년 사이에 국제 정치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면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한국 현대미술이 국제 미술계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하다.

프리젠테이션 참가자들은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견 기획자들이다. 역량 면에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2019년이라는 시점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적절한 선택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을 잡아보았다. 1)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무엇을 제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 그 관점이 새로운가 2) 큐레이팅의 지향성이 뚜렷하고 계획에 구체성이 있는가 3) 베니스 비엔날레 전체 상황과 한국관 구조를 고려해볼 때 전시 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조건들을 놓고 보았을 때 김현진 큐레이터의 기획안이 가장 돋보였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특수성에 기반하면서도 보편성을 담지할 수 있는 주제이며 그럴 만한 역량이 되는 작가들을 선택했다고 생각된다. 한국관의 까다로운 구조를 영상 작품들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는 우려는 있으나, 지금껏 김현진 큐레이터가 보여준 역량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근대의 재구성’이라는 주제가 현 시점에서 그렇게 첨예한 쟁점인가 라는 질문은 제기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미래지향적이고 폭넓은 방향으로 풀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된다.

- 2019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 심의는 한국관 전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상징할 것인가를 논의의 중심 의제로 두고 토론되었다. 심사위원 개별의 가치관이 다양하다 보니, 베니스비엔날레의 문화올림픽 양상의 근대성을 벗어나기 위해 초국가적, 탈영토적 사고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여러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합의를 도출하기에 긴 토론이 이어졌다.

본심에 오른 다섯 명의 기획자들과 그들이 제안하는 전시 모두 유의미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보편적 세계관을 시적으로 제시할 전시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이 제시하게 될 새로운 자연, 남북한의 긴장과 화합에 대한 당면한 의제 등 각각의 기획안이 나름대로의 전시전략을 지니고 있었다.

합의로 결정된 김현진 큐레이터의 경우, 한국 여성작가 3인의 전시로 한국과 동북아 여성의 역사와 현실을 조망하고 그들의 상상력을 세계무대에 소개하고자 한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검증된 바 있는 큐레이터의 기획력에 대한 신뢰와 참여 작가 3인의 탁월한 예술적 역량에 기대하며 최근 흥행 위주의 전시보다는 역사와 지역, 젠더 이슈를 진지하게 다루는 전시를 제시할 것이다.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 이번 제안들에서는 비엔날레라는 특수성을 의식하여 어느덧 그조차 정형화 되어버린 ‘비엔날레형 전시’에 대해 질문하는 태도들이 돋보였다. 주제의식이 도드라지면서 담론과 실험, 토론, 연구 성격을 강화하는 도전적 제안들도 많았다. 해외 기성 비엔날레와 미술 전반에 대한 내용과 형식에서의 일종의 성찰적 극복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

최종심에 오른 제안들은 작가의 선택과 주제의식, 전시방법론 측면에서 각각 분명한 방향성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에서 우열을 가리기 불가능하여 심사는 잠시 평행선을 달렸다. 각 제안의 특성을 존중하는 상태에서 신작의 독창성, 구현가능성, 기획의 내실 위주로 제안작들을 좁혀나갔다.

최종적으로 남게 된 김현진의 제안은 세 명의 작가와 기획자가 이야기를 보태가며 담론을 보완, 확장해 가는 구조를 뚝으로써 구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다중성과 연결의 섬세한 역동을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을 지녔다고 판단되었다. 시각 이벤트의 각축장에서 각자의 현지성에 밀착된 구체적인 서사의 공명을 시도하는 도전적 기획의 가치도 높이 샀다. 끝으로 각 제안이 담은 주제의식에 경중을 가릴 수 없게 깊이 공명하였음을 밝힌다.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심히 경화된 제도가 아직 우리에게 무엇일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도전하여준 제안들에 경의를 표한다.